

자기 마음을 밝히면 조상들도 돌아다니게 밝아집니다!

25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말없이 쓰되, 말없이 끌리되 그 굴린 자리에 다시 보라 이겁니다. 알면 자기가 알았지 남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알았어도 아는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때가 아들 사춘기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때가!

그래서 그런 걸 보되, 급한 일이 있으면 쓰되 그 썼단 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그걸 보되, 들되 그것은 역시 도반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공부할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도반들끼리 앉아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글쎄 네놈이 말이야, 이거를 봤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 아, 고놈도 고놈이더군, 그래." 하면서 재미있게 거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봤더니 이리이러하니깐 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러는 거는 바로, 선신이 되라고 했더니 귀신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기껏 백의부처가 되라고 물어 뒀더니 아, 이건 좀더러서 그대로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무짝에도 못 쓰죠. 심어 봤자 아무도 밭에 안 있고 종다리만 올라오니까 뭐 이파리를 먹을 수가 있나, 씨를 쓸 수가 있나? 그와 같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본다면, 거기에 머물러있다면, 나라는 어떤만 서고 아상만 서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당당하고 도도하고 내 모든 행으로서는 겸손하고 위를 보면 위는 바로 아래를 보면 아래를 보는 대로, 항상 엄밀하게 그렇게 자비한 마음으로서 남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말 한 번 행 한 번 잘못하고 돌아가면 잘못된 게 나에게는 미치지 게 아닙니다. 역대의 조상들한테도 미칠 뿐 아니라, 저 끄트머리로 가서는 석존까지 일컬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저 불자들이 하는 일이 저게 뭐야? 저 행동 좀 봐!" 그러다, '불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석존이 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자 나고 내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 누구를 막론해 놓고 동시에 욕을 먹는 겁니다. 동시에!

뜻은 똑같지만 선지식들이 달리 말을 자주 하는 까닭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을 테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익었다 안 익었다 그걸 보되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낚서 참말 보리를 잘했으면 거기서 씩이 띄어 나올 테니까 그걸 보리를 하게 만든다고 그랬을 겁니다. 나를 보았다 하더라도 또 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안으로 굴러서 보리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문 따뜻해지면 조금 넓은 평수로 집을 옮겨 볼까 생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더라도 낱자를 봐야 하고 방향을 봐야 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는데 북쪽으로 삼살방이 들어서 계약은 해 놓고 못 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그러했지마는 삼살방으로 가면 집안이 잘 안 되니까 죽는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또 삼살방이 들기 이전에 이사를 가면 가환이 떠나질 않는다. 너는 내년에 꼭 죽을 사주팔자고 삼재가 들었으니까 잘못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약했으면 자기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고귀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형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중지 않은 말에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고 선 남의 말에 그냥 휘휘휘 휘아가는나 이겁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의 노예이지 자신이 사는 참 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죽는다 산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마세요.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견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천도 좀 지켜 주시오." 하니까 "허, 본래 살아온 게 없다면 죽을 것도 없을 것을..." 하고선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천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무색하겠습니까만 그거는 그 즉시에 요리가 된 것이고 그 즉시에 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물질 분위만 알지 보이지 않는 50%의 그 영향력은 모르고 사시기 때문에 자유권을 얻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랑잎과 같은 몸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낙엽이 진다고 해서 죽는다고 애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불이 들어와서 밝아 있다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런 언어도 불이 없고 항상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산다도 없습니다. 나무 이파리로 친다면 나무 이파리가 낙엽이 저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흙에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 보듯이 사람도 천차만별의 속인수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뿌리인 참자기를 못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이요,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마음이 벗어나야 자유권을 얻고
자유권을 얻어야
세세생생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화신(化身)인데 모든 부처가, 일체제불과 중생이다 여러분 한마음 속에 들었거늘 여러분은 만날 그저 부처님 앞에 갔다 놓고, 부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부처님한테다가 갔다 놓고 빌어 아만 자식과 남편과 부모가 잘되는 줄 아는 그러한 소치는 여러분이 정말 그 법을 모르고 죄를 덮어쓰는 일입니다. 그런 건 덮어쓰워 주지도 말아야 하고 덮어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여라도 '누가 이리로 가면 나쁘니 이사를 가지 마라. 부적을 가져라. 또 무슨 고사를 지내라. 크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라.' 이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데 속는다면 여러분은 한시도 벗어나길 길이 없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이사가는 날도 내가 이날 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게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예요. 내가 집을 짓고 싶다 할 때에 거기 지으면 그냥 부처님의 법이니 내가 어디 걸렀다 안 걸렀다 이런 것을 논의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고귀한 보배 속에 바로 자기 마음이 나오는데 참나 참나 생각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법음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려면

문 지구에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그 후에 지금의 과학문명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으로 알려진 무유 문명과 아틀란티스 문명의 시대가 있었지만 탐욕 때문에 핵전쟁으로 한순간에 바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도 정신문명은 저버리고 물질로만 치달는다면 이전의 문명이 그러했듯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들 합니다. 스님, 어떻게 마음을 내고 살아가야 지금의 문명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지요?

답 부처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의 모든 역사, 문화를 본다고 해도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서 문화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지금은 폐허가 되거나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떠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나 역

사의 마음으로 날이 흘러야 할 텐데 마음으로 돌리지 않고 색으로 돌렸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그리고 타의로 돌려서 욕심, 원망, 증오, 싸움으로 만 가니까 '전체 일체 만법을 내 마음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 안 하고 내 마음으로 돌린다면 내가 다시 여기 오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으로 돌린다면 석가가 따로 있고 어디 예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문화 발전시킨 그분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대인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내가 시냇물로 이렇게 합니다. 못 알아들을 테니까. 천체망원경도 있고 무전 통신기도 있고 탐지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책 정기도 있고 영사기도 있다고요. 다 있는데 대뇌로 한번 한 생각이 들어가면 다 통과가 되게끔 돼 있어서 자동응답이 이겁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금 자동기를 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어떠한 기독교가 어떠한 가톨릭교가 어떠한. 이것이 내 것이고 저 것이 내 것이고, 분별하고 싸우다 보니까 요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싸워야 돼. 뱀이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났습니까? 이 세상 일체가 다 생명 없는 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생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마음 아닌 게 하나도 없이 일심(一心)으로 돌아가고 바로 공체(公體)로 돌아가고 공식(公食)하고 있고 공용(公用)을 하고 있거늘 어찌 독불장군이 있다고 그렇게들 아난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라고 하는 것은, 내 참나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지 거꾸로 돌아가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남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리를 알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주세계의 근본을 모르는 것은 내 근본을 모르는 거와 같기 때문에 우주세계의 근본을 모른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주세계의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 행성이나 위성 또는 정보원처럼 일하는 별성의 살림이 우리에게 살림살이와 똑같은 걸 모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국방도 정치도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조화를 이룬다면 우주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른 데다가 우리의 좋은 씨를 공급을 해서 다른 집에도 그 씨가 생산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개발이요, 또는 생산이 돼서 잘된다면 바로 우리의 동네집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혹성 하나하나, 별성 하나하나가 나 아님이 없으니 내 동네 아님이 없고 내 행동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의 불씨 하나가 온 누리의 전체를 태워 버릴 수도 있다고요. 온 누리의 전체를 태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식력이나 전자력, 자동력, 통신력 이 모두가 바로 원소의 근본으로 하여금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

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질되고 죽는다. 이런 허망하다 이러는 내가 생각하면 변질되고 허망한 게 아니라 항상 지속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애 당초에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게 어딴습니까. 이 세상에 난 것도 없는데 죽는 게 어딴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참나에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참나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평이가 지붕에서 먹은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는데 얘깁니다. '어, 공평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네.' 이러는 참나에, 공평이는 바로 매미로 옮겨 갑니다. 요거를 하나 예를 들어봐도 옮겨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지수화중 근본에서, 흙과 물과 이러한 데서 미생물이 생겨서 그 생물이 인해서 모두가 이렇게 진화해서 살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나와서 위로는 바람과 태양이 우리를 감싸 주고 자라게 해 주듯, 어머니가 애를 낳아 놓으면 아버지 가 떨어져 다 키우듯이 돼 있다고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지수화중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살아온 것도 아니고요.

본래 있기 때문에 본래 나온 거고, 본래 나왔기 때문에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지속되고 있으면서 자꾸 옮겨가고 모습을 바꿔 놓을 뿐이지 뭐가 죽고 산다는 얘깁니까? 옮겨 놓고 바뀌지는 그 사이에, 참나 참나 옮겨가는 고정된 것이 없는 생활 속에 어찌 거기 인과응보가 붙으며 유언이 붙으며 또는 업보가 붙으며 생사윤회가 붙겠습니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렁거리면서 우리는 지금 리듬을 타고 가는 겁니다. 옮겨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부릴 수만 있다면 우주의 개발이나,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꽃이 피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역사나 문화나 모든 게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명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총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원순 스님 '역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역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2,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설날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